육체의 앞잡이들

(마10:24-42)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육체의 앞잡이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가 '앞잡이'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연상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 그게 아마 제일 흔히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앞잡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잡이'라는 게 뭡니까?
원수의 사주를 받아서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또, 원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끄나풀 노릇을 하는 자들, 좀 같은 의미의 비슷한 말이 있다면 주구(走狗), 달리고 있는 개, 사냥을 할 때 사냥개가 앞으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구라고도 합니다.

'육체의 앞잡이들',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앙과는 전혀 반대로 가 있는 상태,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자면 28절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렵지요, 자연사 하는 것도 두렵고 몸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두렵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두렵고…

그런데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이 육체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일본이 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본이 망할 것을 두려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일본의 앞잡이들입니다.

일본의 앞잡이가 아닌 자들 중에서 일본이 망할 것을 두려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몸의 식민지하에 있는 마음이 몸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실지로 저 자신도 육체가 죽는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 육체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고, ‘아이쿠, 내 몸이 죽으면 안 돼!’ 이러는 것이 육체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육체의 식민지하에 있는 걸 모르고.

그러므로 육체를 사랑한다, 내 몸을 사랑한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몸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식민지하에 있으면서 일본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더 자세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죠?
회사의 덩치가 커졌다고 말할 때도, 그 덩치가 몸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만, 여기서 몸은 고깃덩어리로 이루어진 육체를 말해요.
이 말씀 속에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헌 차 타고 다니다가 새 차로 바꿔 타는 게 아니에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게 헌 차 타다가 새 차로 바꿔 타는 것, 아니면 옷이 더러워져서 그것은 빨려고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몸에서부터 뿌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일과 관계를 맺게 돼요.
내 몸 하나만 달랑 죽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내 자식이 생각이 나고 아내와 남편이 생각나고 내가 하던 일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재산과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또 내가 좀 더 살면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단계도 아쉽습니다.
이렇게 몸에서 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뿌리가 뻗어 나와서 몸 하나 달랑 죽네 마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 보세요, 여러분, 29절에 '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앞의 말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살고 땅에 내려와 팔짝팔짝 뛰다가 날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데 하물며 내 목숨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는 상관없이 죽일 자가 따로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본문 속에서 모순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누가 내 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항차 우리의 목숨을 아버지의 허락 없이 누가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자들이 나를 죽일 때는 아버지의 주관하심에 무슨 구멍이라도 뚫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주관하심에 구멍이 뚫릴 수는 없지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니까.

그러면 '내 몸을 죽이는 자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의 아버지가 허락해서 어떤 사람들이 너를 죽일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자는 살인자 당사자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살인자에게 살해를 당하게 돼서 죽는 것은 살인자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때 그 순간에 목숨을 끊으시려고 살인자를 동원하시는 것이지요.
살인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죄 속에 파묻혀서 행동을 합니다만 그 살인자는 나의 목숨을 여기까지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동원된 수단이라는 겁니다.
마치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 예수님께서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을 죽여 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끄시다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 죽이시는 겁니다.
순교는 박해하는 네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시려고 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데려가실 때 하나님은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으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다는 걸 다 모아놓아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내 육체를 죽이심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에게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하면 마음과 몸이 붙어있는 상태가 원래 자연의 상태이고 본래 그런 것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몸이 우리의 마음을 식민지화 해버렸습니다.
이게 원죄의 상태에서 빚어진 모습이에요.
마음은 원래 몸에 매여서 몸의 식민지하에서 몸의 앞잡이노릇을 하며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원래가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가.
원래가 몸은 몸대로 따로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들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심의 뜻 안에서 몸은 몸의 갈 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 몸에 매여가지고 몸이 어떻게 될까봐, 마치 일제의 앞잡이들이 일제가 망할까봐 두려워 전전긍긍하듯이 우리 몸이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나쁜 사탄의 자식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몸의 식민지가 되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몸을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몸의 오감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주변상황에 우리 마음이 요동질 치고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두려워할 일은 뭐냐 하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더 두려운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몸의 앞잡이가 되어있는 상태니까, 몸의 앞잡이가 되어있어서 몸의 오감관을 통해 들어오는 재료에 벌벌 떨고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몸이 돈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입니다.
두려워하는 상태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내 몸이 죽게 되었다고 무서워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내 몸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바로 그 상태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의 식민지화 되어 있고 몸의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람대로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어요.
우리가 몸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멋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몸이 죽을까봐 벌벌 떨며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몸이 죽는다고 하면 무섭지요.
그러면 사도바울처럼 그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좋은데, 그 무서움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살면서 내용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으로부터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관계의 뿌리들로 인해서 점점 더 죽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자살하라는 말이 아닌 것 아시죠?
좀 더 얘기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내가 내 몸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내 몸을 죽인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건 살인이에요.

자, 본문에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뭐냐 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달랑 몸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있음으로 내 마음이 관여하게 되고, 식민지노릇 하게 되고, 앞잡이노릇 하게 되는 모든 관계, 마음이 몸 때문에 소유하게 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벌려서 좋은데 돈을 잃어버릴까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다 연결이 돼있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돈을 못 쓰니까.
'아니 내가 이 재산을 쌓아놓고 죽다니?' 너무너무 억울해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와 빚에 쪼들리고 있는 사람 중 죽음 앞에서 누가 더 두려워할까요?
돈 때문에라도 부자가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자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안 한 사람, 몸이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과 못 생긴 사람, 누가 더 두려울까요?
마음이 몸을 통해 갖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 죽기를 두려워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 자네는 가족이 있으니까 죽으면 안 돼, 나는 가족이 없고 부모도 없으니 내가 죽는 게 나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몸의 앞잡이 노릇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몸은 몸대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끌어 가실 때 내 마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때가 되면 죽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 아무 문제없이 그냥 몸은 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내버려두고 내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갈 길이 있게 분리되기 위해서 십자가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가족과 불화하라, 가족 간에 검으로 관계를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 자식과의 관계를 자르면 내 자식은 어떡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내가 이 몸 때문에 갖게 된 관계를 잘라내면 그게 진정으로 맡기는 게 됩니다.

우리는 맡긴다는 말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식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용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은 돈을 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기 힘드니까 당신이 내 자식을 좀 맡아서 길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의 인생에 있어서 경영자예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칼로 관계를 잘라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 참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게 돼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맡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 십자가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전부들 각자가 따로따로 내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원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지실 필요가 없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주님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원래 주님께 할당된 십자가는 없어요.
우리에게 저주가 할당되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할당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이 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내 몸이 죽기 전에 내 마음에 나의 죽음을 미리 넣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정말로 그 균이 들어올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이 몸이 죽기 전에 미리 죽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죽음에 대해 면역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이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몸이 있기 때문에 생긴 가족관계, 일 관계, 소유관계, 이 세상에 몸 때문에 생긴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몸의 식민지하에서 살고 있는 식민지의 앞잡이들이 된다 이겁니다.
‘이 몸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사도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일곱 집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초대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순교는 못하지요.

‘아, 어렵겠는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 몸이 내 마음을 식민지화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앞잡이노릇 하느라고 그 몸을 받들고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십자가로 몸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관계를 내 마음에서 끊어내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끊어내면 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맡겨진 겁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 갈 거예요.
내 몸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자꾸 상관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해 가지고 오늘 본문 32,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시인한다는 이 말씀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서 시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들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시인하라’ 즉, 예수님과 결합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길은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결합했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죽은 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우습게보든지 바가지를 긁든지 간

에 나는 죽은 자다’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식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일 앞에서, 사업 앞에서 시인하는 거죠.
이렇게 시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떠맡으신 것처럼 이 세상 나의 삶을 떠맡으실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은 내 삶대로 진행될 것이고, 내 마음은 식민지로부터 빠져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 그 바로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될 것이다… 목숨까지도 너희가 미워하라’ 해 놓고선 갑자기 뿌리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이 몸이 죽을 때 걱정되는 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뿌리이고 연관성인데,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은 내가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연관돼 있는 하나님아버지께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연관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마음의 연관성이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이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내 가족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가족관계가 주님과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족관계가 끝나는 것을 무서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죽으면서 이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식 놔두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님과 연관된 ‘이 하늘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걸 정말 무서워하라’ 이 뜻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몸의 식민지하에서 식민지의 앞잡이노릇을 하

는 상태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져 있습니까?
돈 없는 상태, 문제가 풍랑처럼 일어난 상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과 연관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워하는 것은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일제식민지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돈이 있거나 말거나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될 거예요, 내가 빌어먹고 살거나 돈 많은 사장으로 살거나 아버지의 뜻대로 갈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움직이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요.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리는 대로…
많이 벌린다고 좋아서 벌렁 나자빠지지 말고, 안 벌린다고 벌벌 떨며 쪼그라들지 말자 이겁니다.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몸 때문에 느껴지는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식민지하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앞잡이노릇 중단해야 됩니다.
자기십자가 집시다!
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사는 것이에요.
시인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지요, 말로는 마귀도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과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다 알아요, 이 연합은 안 하지요.

우리는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디에서 연합합니까? 능력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가 있어요, 같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죠, 그래야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지요, 우리 마음이.
몹쓸 육체의 앞잡이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루 종일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인정하며 확인하며 살아감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하늘을 누리고 이 몸의 상황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에 따라 이끌려져 갈 수 있는 복된 하늘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몹쓸 육체의 앞잡이노릇을 중단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사람 모든 일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은 자임을 시인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몸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움직여 갈 것이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품에서 하늘을 향유하는 복된 하루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